

# 선한행전 10장



А я, как зеленеющая маслина,  
в доме Божием, и уповаю  
на милость Божию во веки  
веков, (Псалом 51-10)

**선한교회 선교위원회**

# 목 차

|   |   |       |                  |
|---|---|-------|------------------|
| 목 | 차 | ..... | 1                |
| 발 | 간 | 사     | ..... 3          |
| 축 | 하 | 의     | 글 ..... 4        |
| 선 | 교 | 개     | 요 ..... 6        |
| 선 | 교 | 대     | 원 프 로 필 ..... 9  |
| 분 | 과 | 별     | 사 역 내 용 ..... 10 |
| 사 | 역 | 일     | 지 ..... 16       |
| 재 | 정 | 보     | 고 ..... 24       |
| 앙 | 케 | 이     | 트 ..... 28       |
| 사 | 역 | 후     | 기 ..... 33       |
| 물 | 품 | 목     | 록 ..... 44       |



## 발 간 사

선교위원장 조계승 집사

선한교회가 오래전에 첫걸음을 시작하였던 해외단기선교가 올해로 10차를 맞게 되었습니다. 선한행전을 10장까지 쓰게 된 셈입니다.

2009년의 9차와 금년의 10차 사이에는 피치 못할 사정으로 시간간격이 조금은 길어졌습니다. 선교지도 과거 9차까지의 필리핀에서 러시아로 바뀌었습니다. 지금까지 언어, 비용 등의 문제로 항상 필리핀으로만 단기선교를 가는 데서, 금년에는 강성규 선교사님의 사역지인 러시아 '톰스크(TOMSK)'로 가게 되었습니다.

장소와 시간이 달라도 매번 선교지를 가는 큰 틀에서의 목적은 항상 같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받고 경험한 자로서, 통로가 되어 그 은혜를 이역만리 다른 문화권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달하는 것이지요.

선교는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복되도다" 하신 주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현장임을 믿습니다. 이사야서 52장 7절 말씀처럼 아름다운 발을 가지고 걸어가는 동적인 행위이되, 좋은 소식을 전하며 구원의 길로 이웃을 인도하는 사랑의 행위임을 믿습니다.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네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러시아에서의 단기 선교는 처음인지라 잘 할 수 있을까하는 두려움이 있었지만 그 길을 가겠다고 결심하고 뚜벅 뚜벅 준비해 갈 때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선교의 방법도 이전과는 다른 새로운 시도도 하였습니다.(한국어 사역, 태권무, 공예 등) 하나님께서 우리의 사역을 축복하셔서 현지인들과 즐겁고 유쾌한 소통의 시간을 갖게 하셨습니다. 현지인의 결신의 고백도 들을 수 있는 기쁨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곳에서 살아계시고 인생들을 사랑하심을 볼 수 있었습니다. 덤으로, 강성규 선교사님의 선교사역을 조금이나마 이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선교후기 책자를 통해 여러 등장인물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단기선교 꿈을 품고 실행해 옮긴 13명의 선한교회 출신의 일꾼들과, 톰스크에서 먼저 자리를 잡고 변함없이 선교의 현장을 지키고 계신 강성규 선교사님과 그 가족들, 여러 프로그램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현지인들, 그리고 이 모든 등장인물을 넓은 가슴으로 품고 사랑한다고 말씀하시고 연결시켜 주시는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를. 모두가 주인공입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 드립니다. 수고하신 선교대원들과 기도로 물질로 동참하신 선한교회 모든 성도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 축하의 글

### 선한교회 10차 단기선교 후기를 내면서...

임춘배 담임목사

선한교회가 해외 단기선교를 시작한지 이제 10차가 되었습니다. 그동안 이런저런 이유로 여러 해 동안 실행하지 못해서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있던 차에 올해에 다시 단기선교를 시작하게 되어 오랜 장마 끝에 나타난 태양을 보듯 기쁜 마음을 감출수가 없었습니다.

우리 교회는 지금까지 단기선교를 필리핀에 집중해 왔습니다. 러시아는 거리와 경비의 문제 그리고 복음을 자유롭게 전할 수 없었던 현지 사정 등이 겹쳐 러시아 쪽으로 가는 것을 꺼려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강선교사님에게 미안한 마음을 늘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주님께서 러시아로 갈수 있는 길을 열어주셔서, 오랫동안 기다렸던 러시아 단기 선교의 첫 발을 내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러시아를 향한 선한행전의 역사가 앞으로도 계속되어지고 단기 선교의 지경이 더욱 넓혀지기를 기대해봅니다.

단기선교는 다음과 같은 여러 가지의 유익이 있습니다.

첫째, 현지 선교사들의 선교를 구체적으로 도울 수 있습니다. 그동안 러시아 선교는 소식으로만 전해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직접 그 땅을 밟고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현장을 보게 되니까 어떻게 선교지와 선교사들을 도울 수 있을지에 대한 분명한 계획과 구체적인 기도를 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둘째, 선교에 참여하는 청. 장년들이 선교에 대한 비전을 발견하고 선교에 더욱 헌신하는 계기가 됩니다. 그동안 막연했던 선교에 대한 생각이 선교지를 방문한 후 구체적인 비전으로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속적으로 단기선교에 동참하고 싶은 열망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번에 참여한 사람들은 2차, 3차 계속 헌신하게 될 것입니다.

셋째, 복음에 수용적인 환경을 경험하면 우리의 삶 속에서도 복음전도에 자신이 붙게 되고 지속적인 선교사의 삶을 살 수 있게 해 줍니다. 그리고 미지근하고 수동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심령에 성령님께서 불을 질러주셔서 다시 생동감 있고 역동적인 성도들로 바꾸어 주십니다.



이번 선교에 동참한 사람들은 모두가 이런 구체적인 유익을 얻게 되었을 줄로 믿습니다. 이런 면에서 모든 성도 여러분들께서도 다음에 제공되는 단기선교의 기회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차례는 바로 당신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보내시기를 원하십니다! ‘주여 나를 보내소서!’

다시 한 번 이번 단기 선교를 위해 직접 현장에 참여해서 몸으로 헌신한 선교팀원 여러분들과 단기선교를 잘 수행할 수 있도록 모든 준비를 마련해준 선교위원장과 해외선교부장, 그리고 기도로 물질로 적극 후원해 주신 모든 성도님들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선교를 통해서도 크게 역사하시고 앞으로도 선한행전을 축복해 주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영광 받아 주옵소서!



제10차 선한행전 출발~ (인천공항에서)



# 선교개요

## 1. 제 10차 선한행전 목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사도행전 1장 8절).”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증인의 사역을 땅 끝까지 감당하는 것이 우리의 목표입니다. 한 영혼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품으며 세상 어디든 우리에게 가라 명하시는 곳으로 가려 합니다. 이번에는 러시아 톰스크입니다. 선한교회 파송선교사이신 강성규 선교사님의 사역지를 돌아보며, 선교사역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 힘이 되려 합니다. 우리가 가서 복음의 씨앗을 뿌릴 때, 언젠가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13명의 단기선교사가 나아 갑니다.

## 2. 선교 일정

### 1) 일 정

- ① 장 소 : 러시아 톰스크
- ② 기 간 : 2014년 7월 13일(주일) - 22일(화) (9박 10일)
- ③ 인 원 : 총 13명

### 2) 팀 구성

| Job  | 이 름      |
|------|----------|
| 리더   | 임춘배 목사   |
| 부리더  | 이정필 전도사  |
| 서기   | 조윤익 장로   |
| 회계   | 방성자 집사   |
| 타임키퍼 | 오세일 권사   |
| 중보기도 | 권인혁 전도사  |
| 찬양   | 유영은      |
| 사진   | 편소원, 김동욱 |
| 물품관리 | 이찬영, 임지수 |
| 작업   | 손주은      |
| 통역   | 강주언      |



### 3) 항공편 및 이동

|        | 출발지                                                                                                                                                                                                                |                  | 출발시간                           | 출발편명               | 도착지              | 도착 시간            |
|--------|--------------------------------------------------------------------------------------------------------------------------------------------------------------------------------------------------------------------|------------------|--------------------------------|--------------------|------------------|------------------|
| 출<br>국 | 인천(ICN)                                                                                                                                                                                                            |                  | 7.13(일)<br>17:50 <sup>1)</sup> | 중국 국제 항공<br>CA 126 | 북경(PEK)          | 7.13(일)<br>19:00 |
|        | 북경(PEK)                                                                                                                                                                                                            |                  | 7.14(월)<br>06:45               | S7 항공<br>S7 874    | 노보시비르스크<br>(OVB) | 7.14(월)<br>10:50 |
|        | 7.14 노보시비르스크 → 톰스크 : 자동차로 이동(5 시간 소요)<br>*차량 4 대로 이동<br>1. 강성규 선교사 운전 : 임춘배, 이정필, 권인혁<br>2. 마르크스 운전 : 조윤익, 오세일, 방성자<br>3. 이반 운전 : 강세언, 이찬영, 임지수, 김동욱<br>4. 빼짜 운전 : 강주언, 유영은, 편소원, 손주은                              |                  |                                |                    |                  |                  |
| 귀<br>국 | 7.20 톰스크 → 노보시비르스크 : 자동차로 이동(5 시간 소요)<br>*조윤익, 오세일 공항버스로 이동<br>7.21 톰스크 → 노보시비르스크 : 자동차로 이동(5 시간 소요)<br>*차량 1 대와 공항버스로 이동<br>강성규 선교사 운전 : 임춘배, 방성자, 이찬영<br>공항버스 : 이정필, 권인혁, 유영은, 편소원, 임지수, 김동욱, 손주은, 강주언, 강세언, 강수언 |                  |                                |                    |                  |                  |
|        | 조윤익<br>오세일                                                                                                                                                                                                         | 노보시비르스크<br>(OVB) | 7.21(월)<br>00:30               | S7 항공<br>S7 873    | 북경(PEK)          | 7.21(월)<br>05:55 |
|        |                                                                                                                                                                                                                    | 북경(PEK)          | 7.21(월)<br>8:30                | 중국 국제 항공<br>CA 123 | 인천(ICN)          | 7.21(월)<br>11:35 |
|        | 본대<br>10 명                                                                                                                                                                                                         | 노보시비르스크<br>(OVB) | 7.22(화)<br>00:30               | S7 항공<br>S7 873    | 북경(PEK)          | 7.22(화)<br>05:55 |
|        |                                                                                                                                                                                                                    | 북경(PEK)          | 7.22(화)<br>11:05               | 중국 국제 항공<br>CA 131 | 인천(ICN)          | 7.22(화)<br>14:15 |

1) 연착하여 19:20 출발



#### 4) 사역 일정

| 시간    | 15(화)                                   | 16(수) | 17(목) | 18(금)       | 19(토)                  | 20(일)    | 21(월) |
|-------|-----------------------------------------|-------|-------|-------------|------------------------|----------|-------|
| 07:00 | 기상, 묵상, 아침식사, 세면                        |       |       |             |                        |          |       |
| 08:00 |                                         |       |       |             |                        |          |       |
| 09:00 | 사역 준비 및 교회 이동                           |       |       | 툼스크<br>시내견학 | 사역준비<br>교회이동           | 교회이동     | 출국준비  |
| 10:00 |                                         |       |       |             |                        | 예배       |       |
| 11:00 | 러시아어1-3, 생활문화(알료나),<br>음악(나스짜), 기독교(빠짜) |       |       |             |                        |          |       |
| 12:00 | 점심 식사                                   |       |       |             | 다과<br>전도자 교회<br>성도와 교제 | 집정리      |       |
| 13:00 | 어린이 사역준비                                |       |       |             |                        |          |       |
| 14:00 | 어린이 사역 1-4일                             |       |       | 달란트<br>시장   |                        |          |       |
| 15:00 |                                         |       |       |             |                        |          |       |
| 16:00 | 사역 정리                                   |       |       | 가정방문1       | 청년만남                   | 공항<br>이동 |       |
| 17:00 | 저녁 식사                                   |       |       |             |                        |          |       |
| 18:00 | 한국어 사역 준비                               |       |       |             |                        |          | 가정방문2 |
| 19:00 | 한국어 1-5                                 |       |       |             |                        |          |       |
| 20:00 | 노래                                      | 태권무   | 공예    | 간증          | 한국어<br>시상              |          |       |
| 21:00 | 마무리 모임 및 귀가                             |       |       |             |                        |          |       |



## 선교대원 프로필



### 임춘배 목사

목사님의 기도가 있었기에 모든 선교 일정이 평안할 수 있었다. 마치 항공 모함을 등에 업은 조각배들이 겁 없이 상륙하는 것처럼... 러시아에서의 주일 예배 중에, 다음 방문 때에는 통역 없이 러시아어로 설교 하신다는 것을 선포하셨다.



### 이정필 전도사

모든 순서와 진행을 조율하고, 참여한 선교팀원들의 화합을 위해 기도하며 섬긴 선교팀의 리더. 선교가 끝난 후에도 '자, 모입시다~' 라는 전도사님의 음성이 꿈에서 들렸다는 누군가의 증언이 있다. 러시아 음식이 너무 잘 맞아서, 고생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살이 빠지지 않으셨다.



### 권인혁 전도사

한 것 없이 얹혀가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선교의 현장을 바라보고 돌아왔다. 후원자들의 기도 덕분에 어린이 사역을 날로 먹었다는 소문이 있다...라고 본인이 쓰셨지만 전도자교회 성도들에게 가장 칭찬을 많이 들었으며 아이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품고 강력한 복음의 메시지를 선포한 사랑의 전도자였다.



### 조운익 장로

팀의 최고령자로서 빠빠한 일정에 많이 힘드셨을텐데 내색도 안하시며 맡겨진 한국어 사역과 문화사역(한국음악), 서기로서의 역할을 기쁨으로 잘 감당해 주셨다. 인자한 표정 속에 감춰진 뜨거운 열정으로 팀원들의 본이 되어주셨다.



### 오세일 권사

권사님의 손길이 닿지 않은 사역이 없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헌신하셨다. 사역 뿐만 아니라 팀원들도 챙기시고 김덕희 사모님도 챙기시고... 많은 것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집중하면서도 선교팀의 분위기 메이커 역할을 감당하셨다.



### 방성자 집사

필리핀에서 여러 번의 선교경험과는 다른 러시아였기에 적응하기가 조금 힘들었지만 맡겨진 한국어 기초반 수업을 잘 감당해 주셨고 청년 못지 않은 개그본능과 친화성으로 러시아인들과 가깝게 지냈고 Thank You에서의 주연 역할을 잘 소화해 주셨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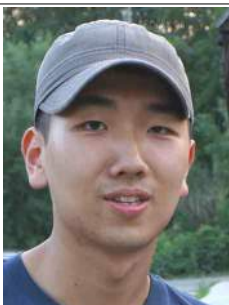
### 이찬영 형제

한국어 초급반의 보조교사로서 누구도 예상치 못한 활약을 펼쳤다. 이 청년이 있는 곳에 언어를 초월한 웃음꽃이 피었으며, 이번 선교를 계기로 러시아를 사랑하게 되었다. 어린이 사역때 물로켓 발사 준비를 묵묵히 감당했고, 그렇게 준비된 물로켓은 러시아 어린이들이 가장 즐거워한 프로그램이 되었다.



### 유영은 자매

늘 침착한 모습으로 어린이 사역과 간증을 감당했다. 체력적인 부분에서 걱정을 했지만 날마다 새 힘으로 공급해 주심에 돌아오는 날까지 건강할 수 있었다. 애교와 위엄으로 동생들을 다스린 청년부의 큰누나. 러시아 아이들도 그 미모에 마음을 열고 사랑한다는 고백을 했다는데...



### 강주언 형제

러시아 공항에서부터 시작된 현지인의 위엄을 마지막 날까지 제대로 떨쳤다. 목자가 양을 인도하듯 선교팀을 인도하며 다닌 현지 통역사 겸 안내인. 강성규 선교사님의 삼남 중 첫째로서 그 믿음과 근육이 날로 성장해 가는 모습이 모두를 흐뭇하게 했다.



### 편소원 자매

출발하는 날부터 임파선이 붓기 시작해서 많이 아팠지만, 그럼에도 가장 환한 웃음으로 선교기간 내내 기쁨을 전파한 자매. 어린이 사역으로 섬기는 모습이 귀하다고 소문나서 귀국한 후에 유아부와 청소년부에서 교사 스카우트가 진행 중이다. 얼핏 소녀시대의 윤아와 닮았다는 확인되지 않은 정보가 있으며, 지나가던 러시아인이 아이돌로 착각하고 사진을 같이 찍자고 했던 확인된 사실이 있다.



### 임지수 형제

아트풍선의 연금술사. 어린이 사역에 필요한 것들을 열심으로 준비하고, 러시아 아이들과 함께 웃고 즐기며 동참했다. 러시아 현지 가정을 방문하던 중에 장래 선교사의 비전을 선포(?)하고 돌아왔다. 세언이와 약속을 지키는 지 한 번 지켜봐야 할 듯...



### 김동욱 형제

사진, 태권무, 땡큐... 여러 사역으로 섬긴 활기 넘치는 청년. 러시아 사역자 뻘썩이와 함께 70도를 넘나드는 바냐(러시아 사우나)에서 마지막까지 버틴 사나이. 넘치는 친화력으로 러시아 청년들과의 교제에 앞장섰다. 공예시간에 만든 부채로 임춘배 목사님을 뽐 터지게 했다는 소문이 있다.



### 손주은 자매

러시아 선교팀의 최연소 팀원이지만, 어른스러운 행동으로 모두를 놀라게 했다. 물론 팀의 막내로서 귀여움과 애교를 잘 담당해 주었다. 앞으로 미래가 기대되는 차세대 하나님의 일꾼으로서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다.



## 분과별 사역 내용

### 1. 어린이 사역

#### 1) 팀 구성

팀장 : 권인혁 / 부팀장 : 유영은 / 팀원 : 편소원, 손주은 / 통역 : 권기수

사역 도우미 : 나스짜, 알로샤, 권기쁨

#### 2) 시간 계획

| 화~금요일       |       |          | 토요일         |        |     |
|-------------|-------|----------|-------------|--------|-----|
| 시간          | 내용    | 비고       | 시간          | 내용     | 비고  |
| 14:00~14:20 | 찬양    | 나스짜, 알로샤 | 14:00~14:20 | 찬양     | 알로샤 |
| 14:20~14:50 | 설교    | 권인혁      | 14:20~14:40 | 설교     | 권인혁 |
| 14:50~15:40 | 레크레이션 | 다함께      | 14:40~15:00 | 간식     |     |
| 15:40~16:00 | 간식    |          | 15:00~16:00 | 달란트 잔치 | 다함께 |

#### 3) 일자별 사역내용

##### (1) 1일차 7.15(화)

찾아온 아이들에게 막대풍선으로 강아지와 칼 등을 만들어 나누어 주었으며, 페이스 페인팅도 그려주기 시작했다. 나스짜 선생님과 러시아어로 찬양을 세곡 배우고 난 후에 통역자(권기수)와 함께 글없는 책을 가지고 복음을 처음부터 끝까지 전하였다. 영접 기도를 할 때에 두 세명을 제외한 대부분의 아이들이 손을 들고, 영접기도를 따라 했다. 레크레이션 시간에는 모임 시작 전에 했던 막대풍선과 페이스 페인팅을 다시 했다. 설교 내용을 퀴즈로 내고, 퀴즈를 맞추는 아이에게 달란트를 상급으로 전달했다. 한국어로 ‘안녕’, ‘사랑해’, ‘잘가’를 가르쳐 주었다. 전도자 교회에서 제공한 간식을 먹고 귀가.

##### (2) 2일차 7.16(수)

나스짜 선생님과 함께 러시아어 찬양을 한 후 삭개오 이야기를 중심으로 복음을 전했다. 설교 후에 두 팀으로 나누어서 게임과 비누방울 놀이를 하였다. 그 후에 러시아어로 팀별 스피드 퀴즈를 한 후 달란트를 나누어 주었다. 간식을 먹고 돌아가면서 ‘잘가’라는 인사를 하기 시작했다.

##### (3) 3일차 7.17(목)

알로샤 선생님이 시작 전 찬양과 레크레이션을 담당해 주셨다. 다메섹 도상의 사울의 이야기를 중심으로 복음을 전달하였다. 설교후에 팀별 레크레이션과 게임, 퀴즈를 진행하였다. 맛있는 간식을 먹고 돌아가면서 ‘잘가’라는 인사 대신에 ‘사랑해’라고 말하며 안아주고 돌아가는 아이들이 있었다.



(4) 4일차 7.18(금)

알로샤 선생님이 시작 전과 설교 후의 레크레이션을 진행해 주셨다. 백부장과 하인의 이야기를 중심으로 복음을 전달하였다. 레크레이션이 끝난 후에 물로켓을 만들어서 교회 앞 마당에서 함께 발사함. 간식을 먹고 귀가.

(5) 5일차 7.19(토)

알로샤 선생님이 시작 전 레크레이션을 해주셨고, 시편 23편을 주제로 복음을 전달하였다. 설교 후에 간식을 먼저 먹고, 간단한 앙케이트를 조사했다. 앞으로도 이러한 어린이 사역이 있을 시에 다시 초청하고 싶으니 본인이나 부모님의 연락처를 남겨달라는 요청에 전화기가 있는 네 명의 어린이가 연락처를 남겼다.(다들 동생이 한두 명씩 있는 장남이나 장녀가 남긴 연락처이기에, 사실상 모든 아이들이 연락처를 남긴 것임) 한국에서 가져온 장난감 중에 가장 좋은 무선조종 자동차나 손목시계의 경우에는 달란트시장 자체가 너무 과열될 우려가 있어서 선교사님이 추후에 전도물품으로 사용하시도록 전달하였음. 달란트 시장에서 모든 아이들이 물품을 골고루 구입하였으며, 기분이 상해서 돌아간 아이는 없었음.

4) 어린이 참석현황

| 이 름       | 첫째날       | 둘째날       | 셋째날       | 넷째날       | 다섯째날      |
|-----------|-----------|-----------|-----------|-----------|-----------|
| 스파스       | 0         | 0         | 0         | 0         | 0         |
| 비탈라       | 0         | 0         | 0         | 0         | 0         |
| 대니스       |           | 0         |           |           |           |
| 제냐        | 0         | 0         | 0         | 0         | 0         |
| 빠따        | 0         | 0         | 0         | 0         |           |
| 스베따       | 0         | 0         | 0         | 0         | 0         |
| 디마        |           | 0         | 0         | 0         | 0         |
| 비까(a)     | 0         | 0         | 0         | 0         | 0         |
| 비까(b)     | 0         | 0         | 0         | 0         | 0         |
| 마리나       | 0         | 0         | 0         | 0         | 0         |
| 다니일(b)    | 0         | 0         | 0         | 0         | 0         |
| 리자        | 0         | 0         | 0         | 0         | 0         |
| 니끼따       | 0         |           |           |           |           |
| 마르크       | 0         |           |           |           |           |
| 이고리       | 0         |           |           |           |           |
| 또마        | 0         |           |           |           |           |
| 막심        |           |           |           | 0         | 0         |
| 타냐        |           |           |           | 0         | 0         |
| 다니일(a)    |           |           |           | 0         | 0         |
| <b>합계</b> | <b>14</b> | <b>12</b> | <b>11</b> | <b>14</b> | <b>13</b> |



## 2. 한국어 교육사역

- 1) 시간 : 19-20시 / 오후반은 신청자에 한해서
- 2) 러시아인 도우미 : 나타샤, 레나
- 3) 반 구성

| 반별  | 강사  | 수 준                 | 반별 우수자    |
|-----|-----|---------------------|-----------|
| 기초반 | 방성자 | 한글을 처음 접한 분들, 가나다라  | 세르게이, 사이수 |
| 초급반 | 오세일 | 한글을 조금 아는 분들, 기본회화  | 레나, 마리아   |
| 중급반 | 조윤익 | 읽기가 가능한 분, 기본문법     | 리지야       |
| 고급반 | 임춘배 | 읽기, 쓰기, 듣기 가능, 프리토킹 | 민 마리나     |

- 4) 일자별 참석인원

| 날짜  | 15(화) | 16(수) | 17(목) | 18(금) | 19(토) |
|-----|-------|-------|-------|-------|-------|
| 오후반 | 3명    | 4명    | 5명    | 5명    | 4명    |
| 저녁반 | 27명   | 22명   | 21명   | 22명   | 22명   |

※ 오후반과 저녁반 모두 참석한 열정적인 학생들도 있었음.

## 3. 한국문화 사역

- 1) 시간 : 20-21시
- 2) 일차별 주제 및 참석인원

| 일차     | 주 제 (담당)           | 참석인원 |
|--------|--------------------|------|
| 1일차(화) | 한국음악 (담당 : 조윤익)    | 28명  |
| 2일차(수) | 태권무 (담당 : 이정필)     | 28명  |
| 3일차(목) | 공예 (담당 : 오세일)      | 27명  |
| 4일차(금) | 복음 · 간증 (담당 : 권인혁) | 25명  |
| 5일차(토) | 한국어교육 시상 및 교제      | 23명  |

## 4. 한국음식 사역

팀장 : 오세일 / 부팀장 : 임지수 / 팀원 : 이찬영

음식종류 : 김밥, 잡채, 불고기 등

\* 계획초기에는 참가자들과 음식을 직접 만들어보려 하였으나 일정상 여의치 않아 선교팀에서 만든 음식을 제공하는 것으로 변경하였고, 주일예배 후 다과시간에 김밥을 함께 나누었음. 한국어강좌 수강생들이 많이 참여했는데 이미 김밥에 대해 알고 있는 사람들이 많았고 좋아하는 분위기였음.



## 5. 주일예배 사역

설교 : 임춘배 목사 / 간증 : 방성자 집사 (장울가 통역)

축복송(한국어와 러시아어로 한번씩), Thank You(나레이션 : 나스빠)

## 6. 가정방문, 만남 사역

(1) 1차 가정방문(7월 19일 16시) - 안 엘라 가정(지마, 마르크)

조운익, 오세일, 권인혁 (3명)

(2) 2차 가정방문(7월 20일 19시) - 박루슬란, 장울가 가정

(3) 고려인 청년들과 만남(7/20(일) 16시-18시, 교회)

· 대상 : 민 마리나(25 고려인 청년회 잡지 편집), 니콜라이 양(Николай Лян), 올가 프리호드코(Ольга Приходько, 영어 선생 25세, 엄마 고려인)

· 주제: 러시아와 한국 생활 교환, 한국인의 삶 교제

## 7. 선교 교육

· 시간: 오전 10-11시, 11-12시

· 이론 교육: 러시아어, 러시아 문화, 러시아 음악, 러시아 기독교

· 실습 교육: 톰스크 시내 견학



## 사역 일지

기록 - 서기 조운익 장로

### # 준비

2014년도 제 10차 선한행전 선교대원을 모집했습니다. 13명이 신청했지만 한 명이 빠지고 한 명이 들어와 최종 13명으로 선교팀을 구성하였고 13명의 남녀노소가 한 가지 목표를 위해 조금은 뼈격거리며 준비하고 맞춰나갔습니다. 8번의 모임과 3일간의 합숙훈련으로 러시아어 공부를 비롯한 준비를 마무리 지었습니다. 선교위원회서 수 차례 검토한 후에 지금까지 해왔던 아홉 차례의 필리핀선교와는 다른 컨셉으로 준비했습니다.

### # 1-2일차(7월 13-14일, 일-월)

'가는 길이 너무 힘들다'로 표현되는 일정입니다. 인천공항 → 북경공항 → 노보시비르스크 → 톰스크까지 하루 반나절의 여정은 시작부터 어렵다는 것을 몸으로 느끼게 했습니다. 그러나 노보시비르스크 소망교회에서의 따뜻한 영접과 푸짐한 식사는 모든 피곤을 씻어주었습니다. 승용차 4대에 나눠타고 톰스크까지 가는 5시간의 거친 길은 힘이 들긴 했지만, 너무나도 파란 하늘, 넓은 초원, 끝없이 펼쳐지는 자작나무숲은 한 가닥 휴식이 되었습니다. 차를 운전하는 막심의 호의로 길에서 파는 타이가 숲에서 나는 야생딸기를 맛보기도 하면서.



북경공항에서의 노숙



소망교회에서의 점심 식사



자작나무숲길



타이가 숲의 야생딸기

저녁 - 강성규 선교사님과 김덕희 선교사님의 환영과 맛있는 식사로 이틀에 걸친 이동을 마무리 했습니다. 13명의 선교대원과 많은 짐들이 아파트에 들어차고 선교사님 4식구와 함께 총 17명이 모이자 조금 답답합니다. 그러나 화장실 하나 욕실 하나로 눈치껏 짜증 없이 8일을 살았습니다.



선교사님의 아파트



아파트의 거실(여기에만 2인용 침대가 3개, 7명이 취침)

## # 3일차(7월 15일, 화)

7시에 일어나 Q.T와 나눔 그리고 러시아식 아침식사.

오전에 러시아어와 문화를 배우고 오후에는 어린이사역과 저녁 한글사역 문화사역 준비를 차근차근 했습니다. 엘라 할머니가 정성껏 준비한 점심으로 배를 채우고 첫 만남이라는 긴장된 기다림이 있었습니다. '올까? 얼마나 올까? 잘 할 수 있을까?' 2시가 가까워 오자 아이들이 하나 둘 모이더니 어느덧 15명 정도가 모였습니다. 권인혁 전도사님과 아이들 그리고 러시아 선생님과 함께 즐겁게 페이스페인팅, 그리고 권전도사님의 복음전



도로 은혜롭게 진행되었습니다. 선교팀과 아이들도 금방 친해지고.



페이스페인팅, 아트풍선(첫날이라 아직 표정이...)



어린이사역 통역으로 수고해준 권기수

놀랍게도 러시아 대학생의 요청으로 계획에 없었던 한국어 오후 수업이 3명의 학생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저녁을 먹고 한글교실이 시작되었습니다. 방성자 집사님의 기초반, 오세일 권사님의 초급반, 조운익 장로님의 중급반, 임춘배 목사님의 고급반 이렇게 4개 반으로 총 27명의 학생이 한글의 세계에 빠져들었습니다. 17살의 대학생에서부터 장년의 남성, 할머니까지 모두가 열심히 공부하였습니다.

한글 수업 후에 28명이 문화사역으로 조운익 장로가 진행한 '한국의 음악'을 관심있게 들었습니다. 중간에 'K-POP'이 나오자 열광을 합니다. '한류'와 'K-POP'이 러시아 젊은이에게 한글을 배우고자 하는 열망을 심어주었고 이것이 선교의 중요한 접착점이 되는 것 같습니다. 교회에서 선교사님 집까지는 걸어서 30분, 버스로 20분, 승용차로 10분 걸립니다. 긴장된 그러나 즐겁고 보람 있었던 첫날 사역을 마무리하고 집으로 돌아가는데 아직도 햇빛이 비치고 있습니다. 10시 30분이 넘었지만 대낮처럼 환합니다. 백야-하얀 밤. 정말로 환합니다. 집에 들어가 씻고 저녁 11시에 야참을 저녁처럼 먹습니다. 맛있게 그리고 즐겁게. 그리고 짧은 잠 - 새벽 4시면 밖이 환합니다.



한국어 교실 - 기초반 (방성자 집사)



한국어 교실 - 고급반 (임춘배 목사)



## # 4일차(7월 16일, 수)

바게트 빵 위에 햄, 토마토, 치즈를 올리고 오븐에 구운 것과 우유, 사과주스, 커피, 야구르트 등 풍성한 아침이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버스로 교회이동. 이틀 동안 파란 하늘이 어두워지더니 빗방울이 떨어집니다. 비가 오는데 애들이 울까하는 걱정도 잠시, 아이들이 모입니다. 어린이들은 언제나 즐겁고 활기칩니다. 비누방울 놀이는 어른도 동심에 빠져들게 합니다. 오늘도 역시 복음을 증거하고, 초청의 시간에 영접하는 아이도 있습니다. 주님께 영광!!!!



선교사님택에서의 아침식사



어린이사역 - 비눗방울 놀이

한글 오후, 저녁반 그리고 문화사역. 문화사역은 태권무였는데 같이 하는 프로그램에 좋아합니다. 선교팀과 참석자들 사이의 벽은 이제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단 이틀 만에. 비로 인한 추위로 움추리고 있지만 빼짜 목사님이 교회 뒤편에 마련된 바냐(러시아식 사우나)를 준비했습니다. 뜨거운 사우나 후에 자작나무잎 묶은 것으로 몸을 때리는 러시아식 사우나<sup>2)</sup>로 피로를 풀었습니다.



한국어 교실 - 초급반 (오세일 권사)



태권무 - 멈출 수 없네

2) 교회에 웬 사우나가? 하실 분들이 계시겠지만, 겨울에는 영하 40°C이하로 내려가는 시베리아에 위치한 톰스크에는 추운 겨울을 나기 위해서 이런 시설들이 필요합니다. 또한 교회에서는 불신자들과의 접촉점들을 만들기 위한 스포츠 사역 같은 것을 하고 나서 사우나에서 교제하며 계속해서 전도의 도구로 삼고 있습니다.



## # 5일차(7월 17일, 목)

계속되는 찌푸린 날씨 속에 사역을 시작합니다. 여전히 즐거운 어린이 사역입니다. 러시아 선생님의 능력이 놀랍습니다. 대부분이 대학생인 한글공부팀은 열정이 넘쳐흐르고 보조하는 우리교회 청년들도 열정이 넘쳐흐릅니다. 공예시간에 신사임당의 초충도를 그리는 손들이 신중하게 움직입니다. 자기가 직접 만든 부채를 보고 즐거워합니다.



식사준비로 수고해주신 엘라 할머니



중급반 우수학생 리지아

## # 6일차(7월 18일, 금)

오늘은 아침식사 후 준비된 팀(3팀으로 나눔<sup>3)</sup>)부터 톰스크 시내를 견학합니다. 선교지를 알아가는 과정이지만 설레임으로 부지런히 꽃단장을 합니다. 러시아 도시마다 있는 레닌광장에서 시작해서 톰강을 따라가며 다른 팀을 만납니다. 인구의 20%가 학생인 이 도시에서 꼭 가봐야 할 대학도 가보고 박물관도 가고 점심은 전통 꼬치요리인 샤슬릭을 먹어보았습니다. 젊은 대원들은 햄버거, 피자, 콜라 등으로 기분을 확 풀었습니다.

물 로켓 발사에 아이들이 완전히 넘어갔습니다. 로켓은 러시아가 잘 만들지만 물 로켓은 우리나라가 최고입니다. 강선교사님이 이것을 보고 다음 주에 오는 다른 선교팀에게 물 로켓 발사대를 꼭 사오라고 신신당부합니다.



안톤 체홉을 사랑한 소원



물로켓을 들고 있는 디마



물로켓 발사후 단체로 찰칵!

3) 장년팀 - 김덕희, 조운익, 오세일, 방성자, 권인혁 / 주언, 수언팀 - 임춘배, 이찬영, 편소원, 임지수 / 세언팀 - 이정필, 유영은, 김동욱, 손주은



전혀 줄어들지 않는 어린이 사역, 한글 사역, 문화 사역입니다. 특히 오늘은 권인혁 전 도사님과 유영은 자매의 간증이 있었는데 모두들 진지하게 들었습니다.



간증으로 수고해준 영은자매



한국어 교실 - 중급반 (조윤익 장로)

## # 7일차(7월 19일, 토)

오늘은 사역을 마무리 하는 날입니다. 좋은 날씨에 모두들 활기차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편소원 자매가 목이 붓고 힘들었지만 대부분 건강하게 지치지 않고 기쁘게 감당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1차 성도 가정방문이 있습니다. 믿지 않는 젊은 가장에게 강하게 복음을 전하는 강선교사님과 1시간여 동안 토론을 하는 그 집의 가장을 보며 러시아인들이 토론을 즐긴다는 것을 조금 엿보았습니다.

달란트잔치에서 물건선택에 고민하는 아이들이 귀여웠습니다. 여전히 뜨거운 한글 수업이었습니다. 그러나 놀라운 것은 참석자들에게 한국의 기념품을 주며 교제하는 모임이었습니다. 대부분이 화려한 색깔의 드레스나 복장을 하고 차를 마시며 대화를 나누는데 집에 갈 생각이 없습니다. 내일 주일 예배에 참석하여 달라는 초청을 하고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몇 명이나 올까?



달란트 시장



한국어교실을 마치고 다함께!



## # 8일차(7월 20일, 주일)

아침에 교회에 도착하자 현지교회 성도들이 예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50여명의 교인과 선교팀 그리고 한글수업에 참여한 학생 중 11명이 예배에 참석하여 예배당을 꽉 채워 예배를 드렸습니다. 계속 오는 사람들로 인해 예배 중에 의자를 더 준비했습니다.

조운익 장로와 오세일 권사는 오후에 먼저 한국으로 출발하였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대원들은 2차로 성도의 집을 방문하여 즐거운 교제를 나누었습니다. 방문한 가정은 목요일 간증과 주일예배 통역으로 수고해 준 장올가 자매의 집입니다.



주일예배 설교하시는 목사님과 장올가(통역)



가정방문 2차

## # 9-10일차(7월 21-22일, 월-화)

오전에 짐을 싸고 기념품을 산 후 오후에 작은 노선버스(20인승 정도)를 타고 노보시 비리스크 공항으로 출발했습니다. 공항 도착시간이 저녁 10시이지만 날이 밝아서 편안했습니다. 저녁 12시에 비행기를 타고 집으로 집으로. 화요일 오전에 인천공항에 도착하여 아쉬움을 뒤로 한 채 감사하는 마음으로 사랑하는 가족들의 품으로 돌아갑니다.

## # 에필로그

이번 단기선교가 어떤 역사를 이루었고, 또 이를 것인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선교지에 소문을 내었고 50명 이상과 접촉점을 만들었고 11명이 새로 교회에 나왔습니다. 예의상 나와 주었을 가능성이 많지만 이것도 놀라운 일이라며 기뻐하는 현지인을 보고 확실히 복음의 씨앗을 뿌렸다는 것을 알았고, 선교대원들에게는 선교에 대한 것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에 대하여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주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믿음의 선구자  
강성규 선교사님



사랑으로 섬겨주신 김덕희  
사모님과 사랑스러운(?) 야참



둘째 세언이와 셋째 수언이



토스크를 사랑한 동욱



고려인 연합회 청년들과 만남



어린이 사역을 도와준 알로샤와 나스짜



토스크의 버거킹(부르게르 킹그)



## 재정보고

| 수 입   |              | 지 출     |              |
|-------|--------------|---------|--------------|
| 항 목   | 금 액          | 항 목     | 금 액          |
| 수입총액  | 23,308,000 원 | 지출총액    | 23,308,000 원 |
| 회 비   | 6,800,000 원  | 여 비     | 14,103,490 원 |
| 개인후원  | 2,231,000 원  | 사역비     | 2,112,290 원  |
| 선교바자회 | 1,737,000 원  | 수용비     | 1,122,340 원  |
| 교회지원  | 11,000,000 원 | 러시아 체제비 | 3,925,400 원  |
| 목적헌금  | 1,540,000 원  | 러시아 헌금  | 2,044,480 원  |



## 수입내역

| 항 목            | 금 액          | 내 역                                                                                    |         |        |         |
|----------------|--------------|----------------------------------------------------------------------------------------|---------|--------|---------|
| 합 계            | 23,308,000 원 |                                                                                        |         |        |         |
| 회비             | 6,800,000 원  | 1,000,000 x 3인 = 3,000,000 원<br>600,000 x 6인 = 3,600,000 원<br>200,000 x 1인 = 200,000 원 |         |        |         |
| 개인후원<br>(물품후원) | 2,231,000 원  | 박대수                                                                                    | 20,000  | 7.6 현금 | 560,000 |
|                |              | 정진숙                                                                                    | 20,000  | 고상돈    | 300,000 |
|                |              | 박수민                                                                                    | 20,000  | 백미경    | 100,000 |
|                |              | 박수진                                                                                    | 20,000  | 박희태    | 200,000 |
|                |              | 박윤수                                                                                    | 20,000  | 이성범    | 100,000 |
|                |              | 이소영A                                                                                   | 50,000  | 무명     | 100,000 |
|                |              | 박재경                                                                                    | 20,000  | 오인숙    | 60,000  |
|                |              | 이동수                                                                                    | 91,000  | 윤호중    | 100,000 |
|                |              | 김점분                                                                                    | 50,000  | 이만기    | 100,000 |
|                |              | 이용재                                                                                    | 100,000 | 김대희    | 100,000 |
|                |              | 백상열                                                                                    | 100,000 |        |         |
| 선교바자회          | 1,737,000 원  | 커피 및 과일판매 3회, 바자회 1회                                                                   |         |        |         |
| 교회지원           | 11,000,000 원 |                                                                                        |         |        |         |
| 목적헌금           | 1,540,000 원  | 조계승 선교위원장                                                                              |         |        |         |
| 물품후원           |              | 의약품 - 유신웅장로 후원<br>밀반찬 - 김명옥권사, 김은정집사,<br>최윤정집사, 이광순집사                                  |         |        |         |



## 지출내역(국내)

| 항 목             | 금 액                            | 내 역                                                                          |
|-----------------|--------------------------------|------------------------------------------------------------------------------|
| <b>합 계</b>      | <b>23,308,000 원</b>            |                                                                              |
| <b>여비</b>       | <b>14,103,490 원</b>            |                                                                              |
| 항공료             | 13,860,000 원                   | · 1인 990,000원                                                                |
| 여행자보험           | 243,490 원                      |                                                                              |
| <b>사역비</b>      | <b>2,112,290 원</b>             |                                                                              |
| 어린이사역           | 752,190 원                      | · 사역물품 401,790원<br>· 달란트잔치 350,400원                                          |
| 한국어사역           | 378,560 원                      | · 한국어교재제작 148,560원<br>· 성적우수자 한국기념품 230,000원                                 |
| 한국문화사역          | 981,540 원                      | · 공예사역 200,850원<br>· 태권도도복 243,000원<br>· 음식사역 200,190원<br>· 봉사자선물 등 337,500원 |
| <b>수용비</b>      | <b>1,122,340 원</b>             |                                                                              |
| 합숙훈련            | 352,830 원                      |                                                                              |
| 포장용품            | 31,800 원                       |                                                                              |
| 매트              | 111,500 원                      | · 10개                                                                        |
| 단체티셔츠           | 359,000 원                      |                                                                              |
| 후기 제작           | 100,000 원                      |                                                                              |
| 기타              | 167,210 원                      |                                                                              |
| <b>환전(국외지출)</b> | <b>5,969,880 원</b><br>(원단위 절삭) | · 총 5,840 \$으로 환전(환율 1,002.24)<br>· 체제비 3,840 \$ / 현금 2,000 \$               |



## 지출내역(국외)

### 1. USD 사용내역

| 항 목         | 금 액      | 내 역                        |
|-------------|----------|----------------------------|
| 합 계         | 5,840 \$ | ← 5,969,880원 (환율 1,002.24) |
| 체제비 환전(rub) | 3,840 \$ | → 130,560 rub (환율 34)      |
| 소망교회 헌금     | 1,000 \$ | 노보시비르스크, 이전 사역 교회          |
| 전도자교회 헌금    | 1,000 \$ | 현재 강성규 선교사 사역 교회           |

### 2. Rub 사용내역

| 항 목  | 금 액         | 내 역                                            |
|------|-------------|------------------------------------------------|
| 합 계  | 130,560 rub | ← 3,480 \$ (환율 34)                             |
| 식비   | 101,660 rub | · 1인 200\$, 2,600\$<br>· 1인 30\$, 390\$ 간식비 포함 |
| 차량이동 | 22,100 rub  | · 1인 50\$, 650\$                               |
| 견학비  | 6,800 rub   | · 200\$                                        |



# 단기선교 앙케이트

## 1. 단기선교를 준비하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일

함께 열심히 준비한 것이 좋았음 (임춘배), 태권무 동작 짜느라 고민했던 시간, 도복 입고 태권무 연습 (이정필), 합숙 중에 어린이 사역을 위해 동대문 방문 했던 일 (권인혁), 합숙 훈련 (조운익), 한국어 교재를 책으로 만들던 일 (오세일), 음식 (방성자), 합숙 때 인사동에 갔던 일 (이찬영), 합숙 기간에 동대문 갔던 것과 운동장에서 물로켓 발사한 것과 모든 팀원이 함께했던 순간 그리고 풍선 연습한 것 등등 (유영은), 한국어 사역 책 만드느라 다음날 다리 못썩던 일, 선물 사러 인사동 갔던 것 (편소원), 동대문에서 물품 산 것 (임지수), 러시아 문화와 러시아어 (김동욱), 공항에서 하룻밤을 기다린 것 (손주은)

## 2. '러시아'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

알아듣지 못하는 말과 헤아릴 수 없는 모기, 날파리 떄들 (임춘배), 비만 오면 추운 날씨와 여름에 마시는 뜨거운 홍차(이정필), 음식. 특히 차 (권인혁), 백야 (조운익), 수백 km의 자작나무 길 (오세일), 한국어 교육. 하늘. 긴 나무 (방성자), 차이. 바냐. 만난 사람들 (이찬영), 톰스크. 강성규 선교사님 가정 (주언,세언,수언이가 생각한다) (유영은), 빵과 주스 (편소원), 톰스크 (임지수), 사우나. 뻗짜 (김동욱), 러시아정교회 (손주은)

## 3. 단기선교 여정 중 가장 기억에 남는 장소

톰스크 교회 (임춘배), 세언이와 물제비 대결하던 뚝강과 사우나(이정필), 선교사님 댁 식탁(부엌), 언제나 맛있는 음식과 웃음이 있었던 기억의 장소 (권인혁), 자작나무 숲 (조운익), 선교사님 집-11개의 침대와 화장실 1개, 욕실1개- (오세일), 2층 침대 잠자는 시간 (방성자), 교회. 갔던 곳이 교회밖에 없어서 (이찬영), 선교사님 댁과 교회. 그리고 톰스크 백화점. 시내여행 갔을 때 갔던 놀이동산과 강 (유영은), 선교사님 댁 (편소원), 선교사님의 집 (임지수), 교회 (김동욱), 톰스크 시내 (손주은)

## 4. 단기선교를 하면서 가장 좋았던 일(것)

한국어를 가르치며 고려인들과 직접 대화한 일들 (임춘배),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여러 문제들을 풀어나갔던 경험들 (이정필), 아이들이 '사랑해'라고 말하며 안아주었을 때 (권인혁), 한국어 사역 (조운익), 선교사님 집에서 세 자녀를 포함해서 17명의 형제자매와 동고동락 한 것 (오세일), 수요일 오전에 선교의 목적에 대해 상기 시켰던 시간 (방성자), 러시아 사람들과 교제한 것 (이찬영), 어린이 사역, 한국어 사역, 음식 사역, 태권무, 공예, 땡큐, 축복송 모두 다 좋았지만 이중에서 어린이 사역이 가장 좋았다



(유영은), 어린이 사역 하루하루 지날 때마다 아이들이 먼저 말하고 안아줬을 때 (편소원), 어린이 사역, 한국어 사역 (임지수), 아이들과 함께 노래 부르고 사역한 것 (김동욱), 내가 사역을 하는 것, 그리고 언니들 오빠들과 친해질 수 있었던 것 (손주은)

## 5. 가장 힘들었던 일

날파리/모기 떼들 (임춘배), 사람과의 관계, 특히 예배 때 진지하지 못한 모습 (권인혁), 없음 (조운익), 오가는 여정 (오세일), 사역 갈등. 배치와 진행의 문제. 가만히 있기. 욕심 내려놓기 (방성자), 이동하며 멀미 때문에 힘들었다 (이찬영), 체력적으로 힘들었다. 공항에서 기다리는 시간이 많았다. 한국에서 러시아로 한 번에 갈 수 있는 직항이 있었으면 좋겠다 (유영은), 출발일부터 아파서 며칠간 고생했던 것 (편소원), 중국. 러시아로 가기전 (임지수), 가족들과 소통과 연락을 못한 것 (김동욱), 러시아 음식을 먹는 것 (손주은)

## 6. 하나님께 감사할 제목 중에 한 가지만 적어본다면

러시아를 이해하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되어서 감사 (임춘배), 많은 중보기도자가 세워져서 기도해 주신 것 (이정필), “무엇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인지”라는 기도예 응답하신 점 (권인혁), 건강하고 안전하게 사역을 마친 것 (조운익), 내가 준비한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경험을 하게 하신 것 (오세일), 좋은 리더들과 함께 했다. 특히 사역자님들의 역할이 최고였다 (방성자), 러시아에 올 수 있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찬영), 저를 먼 나라 러시아 톰스크로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유영은), 갈아타는 북경에서나 러시아에서 오래 걸릴 줄 알고 말도 안통하고 무서웠는데 아무 문제없이 순조롭게 지나간 것 (편소원), 러시아 선교의 기회를 주신 것 (임지수), 이렇게 무사히 선교를 마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김동욱), 우선 사고가 나지 않고 무사히 도착한 것 (손주은)

## 7. 재미있는 에피소드

생각나는 것 없음 (임춘배), 러시아 학생들의 나이를 물어봤을 때 17살이라고 했다. 내 나이가 37이라고 하자, 세 명이 차례로 말했다. 1.아빠 2.아저씨 3.아버지. 주은이가 12살(러시아 나이)이라고 하자 14살인 기쁨이는 동생보다 키가 작다고 좌절했고, 러시아 학생들은 15살처럼 보인다고 했다. (권인혁), 사역 마무리하고 선교사님 댁에 가서 저녁을 먹어야 한다는 생각이 저절로 떠오른 것-저녁 11시인데도 너무 밝아서. 그리고 배가 고파서- (조운익), 맛있는 간식-빵, 케익 등- 실컷 먹음 (오세일), 세언이의 “아, 그거 그럴 필요 없어요~!” (방성자), 교회에서 집으로 걸어오는 길에 엄청 큰 개가 동욱이를 보고 짖어서 동욱이가 개를 놀렸더니 주인 아줌마가 나와서 러시아어로 뭐라고 했음. 내가 가서 죄송하다고 했는데 나중에 주언이가 통역해줌. 동욱이한테 내 개를 왜 놀리냐고 개 목줄 풀면 그때도 놀릴 수 있겠냐고 했는데 내가 죄송하다니



까 “죄송하긴 개뿔”이라고 했다고 함 (이찬영), 러시아 가는 공항에서부터 선교사님 덕, 교회에서 사역을 하는 것이 다 좋았다. 노보시비리스크 공항에서 내려서 자가용으로 5시간 걸리는 톰스크까지 가는 도중에 길이 안 좋은건지 차가 안 좋은건지는 모르겠으나 온몸으로 다 덜컹거리는 것들을 막아내면서 가느라 온몸이 아팠다. 그래도 재밌었다. 얘기하면서 먹으면서 러시아의 넓은 들판도 볼 수 있어서 좋았다. 아디다스 쇼핑도 재밌었고 시내투어도 재밌었고 강성규 선교사님, 김덕희 사모님을 위한 롤링페이퍼와 축복 이벤트도 기억에 남는다. 강성규 선교사님이 그 자리에 안 계셔서 아쉬웠다. 교회 밖에서 고기파티해서 좋았다 (유영은), 한국어 사역 시간, 여자학생들로 꽉찬 오세일권사님 반에 남자들(찬영오빠, 동욱, 세언, 지수라고 말못함)이 몰린 덕분에 주은이랑 내가 갈 곳이 없어짐. 밖에서 박스 깔고 돌 던지고 있는데 마침 지나가시던 강성규 선교사님께서 우릴 안쓰럽게 보셨는지 장보러 마트 가자고 하셔서 사모님과 넷이 마트 다녀옴 ^-^ (편소원), 뺏짜와 러시아 바냐를 해서 러시아 체질이라 하는 것 (김동욱), 날파리가 많은데 권전도사님의 머리카락 속에 날파리가 꼬인 것 (손주은)

## 8. 우리 팀에서 부족했던 것은

러시아 선교 경험 없어서 좀 더 자신있게 하지 못함 (임춘배), 단기선교사로서의 마음과 생각의 준비, 시간개념 (이정필), 침묵 (권인혁), 거의 없었지만 상대에 대한 참을성, 배려 (조운익), ? (오세일), 균형 (방성자), 시간, 자유시간 (이찬영), 러시아 생활을 하면서 빨리 적응한 것은 좋았으나 약간 정신상태가 해이해진 점과 곧바로 모이지 못했던 점이 부족했다고 생각한다 (유영은), 단합 (편소원), 러시아어 (임지수), 완벽하였다 (김동욱), 서로에 대한 믿음과 인내심 (손주은)

## 9. 나에게 부족했던 것은

최선을 다한 것 같다 (임춘배), 배려, 준비성, 넓은 마음 (이정필) 사랑, 기도, 오래참음, 준비 (권인혁), 체력, 순종 (오세일), 끼여들기 못함 (방성자), 마음의 여유 (이찬영), 남을 더 많이 배려했어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던 점이 부족했던 점이다 (유영은), 이해심 (편소원), 러시아어 (임지수), 핸드폰과 인내심이 부족함 (김동욱),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것 (손주은)

## 10. 팀에서 가장 칭찬해 주고 싶은 사람은

두 전도사님들 최고의 헌신 보여줌 (임춘배), 권인혁 전도사-아이들을 사랑으로 품고 열정적으로 어린이 사역을 감당, 제 옆에서 많이 도와줌 (이정필), 이정필 전도사님. 원래 중간 관리자는 고된 법이지요..ㅋㅋ (권인혁), 이정필 전도사 (조운익), 강주언 (오세일), 이정필 전도사님, 주언이, 목사님 (방성자), 권인혁 전도사님 (이찬영), 강주언-통역하느라 고생해서이다. 통역하는 과정에서 몇 번이고 말이 안통하고 답답할 때도 있었는데 자기가 맡은 일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했고 주어진 일에 대해서 성실



하게 일을 해서이다 (유영은), 이정필 전도사님-리더로써 모든 일을 감당, 강주언-통역 (편소원), 이정필 전도사님 (임지수), 이정필 전도사님 (김동욱), 소원이 언니-목이 많이 아팠는데 참고 끝까지 웃으며 열심히 한 것 (손주은)

### 11. 다음 단기선교를 위해 제안하고 싶은 것이 있다면

청소년들을 위한 프로그램 준비 필요 (임춘배), 몇 년 만이라도 집중해서 매년 여름마다 러시아로 단기선교 갔으면 좋겠다, 준비 프로그램의 세팅 (이정필), 준비기간 동안 좀 더 기도와 준비에 힘썼으면... 신청자가 무조건 가는 것이 아니라 준비한 자들이 간다면... (권인혁), 한류/k-pop에 대한 더 많은 이해와 준비 (조운익), 선교지와 사역조정 -1.금식 기도 정말 중요한 듯 2.도중 팀 미팅+도중 외식 3.리더의 팀원 관계 능력 (방성자), 아무리 단기 선교지만 너무 교회랑 집만 왔다갔다 했음. 다음에는 좀 더 시간이 많았으면 좋겠음 (이찬영), 더 많이 준비해서 가고싶다 (유영은), 목적지까지 빨리 갔으면... 대기시간 지옥T\_T (편소원), 오고가는 시간을 줄여 조금 더 많이 사역을 해야한다 (김동욱), 직항으로 가는 나라를 가면 좋겠어요 (손주은)

### 12. 강성규 선교사님 사역에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것

한국어 사역/태권도 사역/복음 전도 (임춘배), 재정과 관심과 중보기도 (이정필), 기도 (권인혁), 물질 (조운익), 선교사님의 vision 청취 (오세일), 밥해주는 분 (방성자), 재정..? (이찬영), 기도와 물질적인 것(재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유영은), 전도 (편소원), 기도 (임지수), 없음 (김동욱), 러시아 사람들에 대한 기도와 우리들의 관심 (손주은)

### 13. 강성규 선교사님과 가족분들께 한 마디

편안하게 숙식해결 해주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임춘배), 선교사님께서 뿌려놓으신 씨앗들의 결실을 저희가 살짝 보고 온 것 같아 감사하고도 송구합니다. 많은 인원이 와서 힘드셨겠지만 사랑으로 섬겨주셔서 감사합니다. 선교사님 부부와 주세수언, 모두 모두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이정필), 하나님만을 따르는 선교사님의 뒷모습. 잘 보고 왔습니다. 선교사님을 기억하는 이들은 많이 앓더라도 그 발자취를 통해 주님을 기억하는 이들이 생겼고, 지금도 생기고 있고, 앞으로도 생길 것입니다. 사랑합니다 (권인혁), 수고에 감사합니다 (조운익), 사랑하고 축복하고 감사드립니다 (오세일), 모두 정말 감사합니다. 눈물이 나도록 (방성자), 일주일 동안 정말 감사했습니다. 항상 건강하세요! (이찬영), 선교사님, 사모님, 주언 세언 수언 모두 감사했어요. 사모님 매일 식사 준비해주시느라 너무 고생 많으셨어요. 정말 진심과 정성이 담긴 음식이라 그런지 너무너무 맛있게 감사하게 잘 먹었어요. 선교사님 단기선교팀 편히 자게 해주시느라 집에서 주무시지도 못하고 죄송해요. 교회에서 주무시느라 너무 고생하셨어요. 차편 제공해주시고 안전하게 있을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해요. 주언 세언 수언 모두 통역하고



단기선교팀 신경쓰느라 고생 많았어요 (유영은), 선교사님 덕에 머무는 내내 감사했습니다. 먹여주시고 재워주시고 힘써주시고... 고마움 투성이 (편소원), 일주일동안 즐거웠고 감사했습니다. 다음에도 기회가 되면 가겠습니다 (임지수), 정말로 감사합니다. 열심히 기도하겠습니다 (김동욱), 우리를 위해 재워주시고 우리들이 편히 사역할 수 있도록 해주신 것에 대해 감사합니다 (손주은)

#### 14. 이번 단기선교를 통해 배운 점이 있다면

러시아에도 복음 전할 수 있다는 것과 고려인들에게 우리가 효과적으로 사역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았다 (임춘배), 하나님께서 선한교회의 선교사역을 기뻐하시며, 한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지극하시다는 것 (이정필), 한걸음 한걸음 기도하며 걸어도 응답하신다는 것. 내가 아니어도 주님의 일은 이루어지지만 그 일을 위해 쓸모없는 나를 부르신다는 것 (권인혁), 선교는 현장에 가보아야 한다 (조운익), 나를 만나는 리더는 내가 상당히 종합적인 맥락에서 상황을 조정하려는 싸움과 집착이 많아 맞춰주기 힘들다 (방성자), 겸손. 범사에 감사. 베푸는 기쁨. 열정 (이찬영), 선교사님의 삶을 보면서 어떤 삶이 선교사의 삶인지 알게되었고 선교에 대해 더 많은 관심이 생겼다. 배려, 인내를 배웠다 (유영은), 사랑받기를 기다리고 바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남을 사랑해야 그대로 돌아온다 (편소원), 한국어가 인기 많다는 것을 배웠다 (임지수), 팀워크를 배우고 하나님 말씀을 배우게 되었다 (김동욱), 하나님의 많은 기적과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 (손주은)

#### 15. 이번 단기선교를 통해 가장 많이 훈련받은 것은

선교에 대한 열정과 복음 전도의 담대함을 배움 (임춘배), 말기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묻는 기도. 참는 것 (권인혁), 기다림 (조운익), 앞서보내기. 무릎 꿇기. 세워주기. 참기. “다시 대화하기”. 사람 버리지 않기 (방성자), 협동심 (이찬영), 기다리고 참고 인내하는 것을 배우고 훈련했다 (유영은), 작은일 하나하나에도 감사하는 것 (편소원), 언어장벽의 무서움을 많이 느껴 공부 좀 해야하는 것을 배웠다 (임지수), 합숙, 하나님과의 만남 (김동욱),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으며 선교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기다리신다는 것 (손주은)



# 사역후기

## < 조윤익 장로 >

가는 길이 너무 힘들다. 인천공항 → 북경공항 → 노보시비리스크 → 톰스크까지 하루 하고도 반나절 동안 기다리고 비행기타고 내려서 북경공항 화물 하역장에서 새우잠을 자고 새벽에 졸린 눈을 비비고 비행기 타고 노보시비리스크에 도착. 차로 5시간을 달려 톰스크에 도착하는 일정이 너무 힘들었다. 그날 저녁 선교사님 댁에서 침대에 누워 생각해 보니 그래도 우리는 인도해주는 사람이 있어 길을 따라 정해진 대로 왔지만 처음에 선교사님 가정에 아무런 연고도 없는 곳에 대장정을 했을 때 어땠을까 생각하니 가슴이 먹먹해왔다.

## < 오세일 권사 >

러시아로 떠나기 전에 단기 선교 동안 나에게 맡겨진 한국어 수업에 대한 많은 부담감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선교팀의 합숙훈련 마지막 날에 소원 자매의 도움을 받아 한국어 교재를 제본하고 나니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평생 처음으로 베이징 공항 수하물 찾는 곳에서 노숙(?)을 하고, 노보시비리스크공항으로부터 수백km의 자작나무 길을 지나 드디어 톰스크에 도착했습니다. 다음날부터 시작된 한국어 수업은 러시아 학생들의 열정 때문에 풍성해졌고, 또 많은 학생들이 주일예배에까지 참석하여 저도 놀랐습니다. 러시아로 떠날 때 기도했던 대로 내가 가진 물고기 두 마리와 보리떡 다섯개를 드렸는데 주님이 한국어반 학생들과 내게 넘치도록 복 주신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번 여행에서 가장 큰 감동은 톰스크에서 강성규 선교사님과 김덕희 사모님 그리고 세 아들 주언, 세언, 수언과 한 집에서 먹고 자고 씻고 함께 일하며 선교사의 삶을 보게 된 것입니다. 우리 집(33평형)만한 크기의 집에 12명이 잘 수 있는 침대(2층 침대 3개, 소파형 2인용 침대 1, 수납형 침대 1 등)가 있었고, 욕조와 세면대 그리고 작은 세탁기가 있어서 겨우 한명이 들어서있을 수 있는 작은 욕실에서 “10분 지났습니다”를 외치면서 매일 아침, 저녁 17명이 씻었습니다. 부엌도 정사각형의 작은 썬크볼 하나에서 아침, 저녁밥과 빵 그리고 이름 모르는 파이? 쥬스, 우유, 요거트, 살구와 복숭아 등등... 그 식탁이 얼마나 풍성했는지는 두 분 전도사님이 증명하실 수 있습니다 ^^.



께 힘드실 것 같다고 하면 와줘서 너무 좋다고 하셨습니다. 내가 예전에 알던 암전한 사모님보다는 소박한 옷에도 당당함과 복음전함에 초점이 맞추어진 파송 선교사님이셨습니다. 그리고 러시아 현지가정 방문 때는 평소 말씀이 없던 강선교사님이 죄와 삶에 대하여 한 시간 이상 깊숙이 폐부를 찌르며 말씀을 전하실 때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우리 선교팀을 온 마음으로 받아준 세 아들들, 주언, 세언, 수언이 사랑합니다. 선교사님과 그 가정에 존경과 큰 감사를 드립니다.

### 〈 “가만히 있기!”, 방성자 집사 〉

선교 때마다 느꼈던 부분이지만, 사역에 집중하다보면 일에 대한 욕심이 생겨서 상황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하게 하는 이상한 추리력이 발동한다. 나도 할 수 있는데...’라는 자존심에 무언가를 하고 싶게 되고, 그것이 막히면 갈등이 발생하는 경험을 이번에도 하게 되었다. 그러나 목사님의 모습을 보면서 깨달은 것이 있다. 한국어 사역 하나만 맡으셨고 학생은 한명 뿐이었는데도, 교재까지 만드시며 철저히 수업을 준비하셨고 그 한 명을 위해서 노래까지 연습해 가시면서 수업을 준비하셨다는 것이다. 작은 것 하나에도 감사함으로 준비하시며 노력하시는 목사님의 모습을 통해 때론 내 능력보다 더 작은 것을 맡게 되고, 그마저도 못하게 되는 상황 속에서 답답해하며 힘들어했던 내 모습을 돌아보며 부끄러웠다. 그렇게 눈에 띄지 않는 사역을 감당하시면서도 대외적으로는 선교사님의 사역을 관찰하시며 control tower의 director처럼 잠잠히 움직이시고, 사역자님들 현지 선교사님, 권사님, 장로님과의 관계 속에서 움직이시는 모습이 인상적이었다.

또한 말없이 사랑으로 밥해주신 김덕희 선교사님의 모습을 보며, 마음에 울림이 남았다. 그럼에도 깊게 교제하지 못하고 뒤에서 바라보아야 하는 나의 상황이 안타까웠지만 나에게 주어진 상황과 역할대로 가만히 있기로 했다.

가만히 있기에 힘을 실어준 이정필 전도사님의 코치가 마음에 깊이 감사함으로 남는데, 참지 못하는 내 낮은 자존감을 위해 상황에 대한 적절한 이해와 구체적 언어, 해결책과 격려로 도와주셨기 때문이다. 인생에 많은 영적인 경험이 있다고 자부한 내게 “사역자는 기름 부으심이 다른가? 그것이 뭘까?”라는 의문이 생기지만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란 단어가 그냥 체면 세워주기랑은 다름을 알게 되었던 선교였다. 나에게 주어진 상황과 역할에 순종하면 나를 통해 일하실 하나님을 기대하게 된다. 감사하자!! 기뻐하자!!



## 〈 “하나님과의 데이트”, 권인혁 전도사 〉

단기 선교를 가기 전 마음가운데 주신 기도제목은 ‘무엇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인가?’이었다. 출발하기 전 이 제목을 두고 기도를 하던 내 마음 속에는 여러 두려움들이 있었다. 사람과의 관계에 대한 두려움, 러시아 사람들 특히 러시아 어린이들에 대한 두려움, 준비되지 못한 부분들, 찬양이나 통역, 게임진행에 관한 두려움, 그리고 가장 큰 두려움인 ‘나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사람인가?’라는 두려움…。 그 모든 것들이 하나도 확실히 해결되지 않은 채 출발하게 되었고, 그렇게 나의 단기선교는 시작되었다. 그러나 내가 가진 그 모든 두려움들에 대해 하나님은 단기선교의 기간 중에 일일이 세밀하게 응답해 주셨다.

어린이 사역의 첫째 날에 사역이 시작되기 한 시간 전인데도 누가 어린이 설교 통역을 할 것인지 결정이 안 된 상황이었다. 설교에 대한 부담이 커져가는 그 때에 한 남매가 교회로 들어왔다. 톰스크의 소망교회에서 어린이 사역을 도와주러 왔다고 하기에 통역이 가능하냐고 물어보자 그 청년이 가능하다고 말했고, 그렇게 어린이 사역 오일간의 통역이 결정되었다. 첫날 어린이 사역부터 함께 한 나스짜 선생님은 러시아 학교에서 음악을 가르치는 선생님이셨고, 내가 했던 모든 걱정이 부질없게도 아이들은 나스짜 선생님을 따라서 생애 처음으로 찬양을 배우고, 즐겁게 부르기 시작했다.

어린이 사역의 셋째 날에는 물총놀이와 물로켓 만들기를 하려고 했었는데, 비가 오는 바람에 모든 계획이 무산되었다. 함께 할 만한 게임을 준비하지 못해서 걱정하고 있었는데, 바로 그때에 알로샤 선생님이라는 분이 새롭게 오셔서 아이들과 레크레이션을 진행해 주셨다.

그런 일들 속에 하루하루가 지나갈수록 러시아 아이들의 마음이 신기할 정도로 열려지는 것이 보이기 시작했다. 무얼 준 것도 아니고, 오랜 시간을 함께 한 것도 아니지만 아이들이 마음을 열고 다가오는 것을 보았다. 과연 하나님은 그곳 톰스크에 함께 계셨고, 내가 걱정했던 모든 일들을 때에 맞게 세밀하게 조정하시고 인도하셨음을 체험하게 되었던 순간이었다.

돌이켜 보니 내가 한 것이라곤 그곳에 가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목격하고 온 것 밖에는 없다. 다만 내 인간적인 본성과 아직도 남아있는 옛 성품이 조금이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덜 가렸기를 바랄 뿐이다. 나에게 단기선교는 하나님과의 데이트였다.



## < 유명은 >

열흘간의 단기선교(러시아) 일정이 막을 내리는 마지막 날이다. 이번 러시아 선교로 인해 많은 것들을 보았고 느꼈다. 일단 러시아로 가길 잘했다는 생각이 든다. 톰스크 생활을 6일 정도 했는데 처음엔 모든 것이 다 어색했지만 하루 이틀 지나고 익숙해졌고 편안해졌다. 강성규 선교사님, 김덕희 사모님께서 너무 잘해주셔서 내 집처럼 편안하게 생활을 할 수 있었다. 13명 팀원 그리고 선교사님 가정의 함께 생활했는데 같이 생활하면서 서로서로 몰랐던 부분들도 알게 되고 서로 서로 친해질 수 있어서 좋았고 같이 생활하면서 배려심도 기를 수 있어서 좋았다.

어린이사역을 하면서 많은 아이들을 만나고 같이 놀아주고 함께 하면서 나도 어려워지는 것 같았고 순수해져서 좋았다. 나에게 다가와서 안기는 여자 어린이 두 명(비까 & 스베따) 때문에 처음엔 놀랐다. 그 아이들이 내 마음을 읽었는지 내가 마음을 열고 아이들을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았다는 걸 아이들이 느낀 거 같았다. 진심은 통한다는 말이 진짜 맞는 거 같다. 더 많은 아이들에게, 아이들 한 사람 한 사람 더 신경써주고 챙겨주고 웃어주고 같이 해줬어야 하는데 체력이 조금씩 달리고 졸음이 몰려오고 가끔 배가 고프고 이런 여러 가지 이유들로 정신이 약해지고 내 할 일을 100%하지 못한 것이 아쉽다. 다음 단기선교에 참여하게 된다면 이번보다 더 많은 기도로 준비하고 더 많이 선교에 대해 생각을 하고 준비를 할 것이다.

넷째 날, 간증을 했는데 놀랍게도 간증문이 저절로(?) 쓰여졌다. 처음 시작은 어려웠지만 주님의 지혜로 잘 할 수 있었다. 한국어 사역을 통해서 우리나라 말을 가르치고 옆에서 도와주고 열심히 한국에서 연습해간 태권무랑 땡큐 그리고 축복송까지 모두 다 러시아 사람들(고려인 포함)에게 보여줄 수 있어서 감사했다. 공예와 음식 사역 등 같이 하며 음식도 대접할 수 있어서 감사했다.

러시아에 있는 동안 너무 행복했다. 비록 날파리, 모기가 많아서 불편하고 힘들었던 부분도 있었지만 선교사님 가정의 헌신과 사랑, 우리 가족, 우리 교회 성도님들 그리고 열흘이란 시간동안 함께 동고동락한 우리 선교팀 대원 모두의 기도로 인해 정말 편하고 재미있고 감동이 있는 시간들을 보낼 수 있었다. 톰스크에서의 생활 그리고 교회에서 한 사역 그리고 단기 선교팀끼리의 활동 등 잊지 못할 것이다. 물질적인 재정이 교회에 있다면, 부족한 필요가 기도로 인해 넉넉히 채워진다면 내년에도 러시아로 단기선교를 떠날 수 있지 않을까 싶다. 국내선교, 해외선교 활발한 활동들 앞으로가 기대된다. 정말 안전하게 지내고 식사 맛있게 하고 편하게 쉬고 숙면을 취할 수 있어서 감사했다. 한국에 돌아가서도 러시아에서 있었던 일들을 기억할 것이다.



## < 편 소 원 >

이번 러시아로 선교를 간다고 했을 때 사실 갈 생각도 별로 없었고 짧은 여름방학의 10일이 아깝기도 하였다. 그렇게 아무 생각 없이 지내던 중 이정필 전도사님의 권유로 선교를 생각하고 결정하게 되었다. 선교 가기 전 모임과 사역준비를 하면서 알바도 하느라 힘들었지만 그보다 더 큰 하나님의 무언가가 있을 거라 믿었다.

나는 팀에서 어린이 사역과 사진담당을 맡게 되었다. 어린이 사역은 권인혁 전도사님 돕고 사진은 그냥 이것저것 찍으면 되겠지 하고 가볍게 생각했던 감이 있었다. 하지만 나에게 이번 선교는 많은 것을 느끼게 하는 시간이었다. 영어도 아닌 러시아어로 회화도 못하고 알아듣지도 못해서 매우 답답했지만 마음은 통하는 것 같다고 느낀 게 첫날 어색하고 낯설고 잘 웃지도, 말하지도 않던 아이들이 하루하루 지날 때마다 웃으면서 인사도 하고 먼저 말도 걸고 마지막 날은 ‘사랑해’하고 안아주기도 하였다.(비록 그렇게 하면 사탕 2개 준다고 했지만 큰 용기라 생각하고...) 같이 게임도 하고 풍선, 물로켓도 만들면서 하루 2시간, 4일이란 시간동안 조금씩 정이 들었다. 그래서 마지막 날 아이들한테 ‘안녕, 잘가~’ 할 때 웃으면서 인사했지만 속으로는 아쉽기도 하고 더 다가가도 잘해줄걸 후회도 들었다. 또 상황 상황마다 사진을 찍어야 해서 사람들이 있는 이곳저곳 다니며 보았는데 선교팀, 러시아인들 서로 말은 안 통하는데 대화는 하고 싶고... 어떻게 보면 웃기지만 서로 노력하는 모습을 보았다. 못하는 영어단어로 대화하거나 주언, 세언, 수언 이를 다급하게 불러 통역을 요청하거나... 나는 다음에 다시 러시아 선교를 오게 되면 러시아어를 공부해서 꼭 회화를 하리라 마음으로만 생각했다 ㅎㅎ

그렇게 선교를 마치고 한국으로 돌아오는 길에 지금껏 찍었던 사진들을 보는데 한장 한장 넘길 때 마다 새로웠다. 첫날에는 누군지도 모르고 막 찍었는데 이제 보니 ‘아~누구네’하고 이름도 알고 그때 상황 생각하면서 웃기도 하고, 첫날에 사진 찍으며 한국 언제 가나 했던 때가 일주일도 더 지난 일이라니 꿈만 같았다. 비록 공항에서 대기시간이 길었고 선교 떠나는 첫날부터 열나고 목 아파서 힘들었지만 사역할 때 만큼은 힘들거나 그만하고 싶다는 생각은 안했던 것 같다. 물론 내 나름 노력한다고는 했지만 더, 더 열심히 해야 했었는데 그러지 못한 것 같아 아쉽다. 내가 먼저 다가가고 사랑해야 상대방도 나에게 마음을 연다는 것을 전에는 알고만 있었지만 이번 선교를 통해서 직접 느끼고 많은 생각을 할 수 있었다. 이 선교 후기를 쓰면서도 여러 가지 일들이 떠오르는 것을 보면 뜻 깊고 값진 시간이었다고 느껴진다. 저와 선교팀 모두 아무 일 없고 잘 다녀오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 < 이찬영 >

저는 이번 선교에서 많은 사역들을 했지만 그중에서 한국어 교육 사역에 대해 쓰려고 합니다. 처음에 출발하기 전에는 몇 명이나 오겠나 싶은 마음이었는데 막상 가보니까 신청자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와서 놀라웠습니다. 그리고 저는 초급반 보조교사를 했는데 오세일 권사님이 수업을 재밌게 잘 하셔서 마지막 날까지 10명이 넘는 사람들이 열정적으로 배우고 헤어짐을 아쉬워했습니다. 17살짜리 소녀가 한국에 오고 싶다는 생각만으로도 거리를 매일같이 와서 한국어를 배우는 열정적인 모습을 보고 감동했고 하루하루 실력이 늘어가는 사람들을 보며 뿌듯했습니다. 비록 일주일이라는 짧은 시간 때문에 많은 것을 알려주진 못했지만 우리의 마음은 충분히 전하고 온 것 같습니다.

마지막에 주일예배까지 와서 아쉬움과 감사함을 표현해준 러시아 사람들에게 정말 감사했습니다. 우리의 영향으로 이 사람들이 주님을 영접하고 크리스찬으로써 살아가게 되길 바랍니다. 한국어도 꾸준히 배워서 나중에라도 꼭 같은 언어로 얘기를 해보고 싶습니다. 저에게도 그분들에게도 선교팀에게도 정말 행복했던 시간이었습니다.

한국에 남아서 저희에게 기도로, 물질적으로 후원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안전하게 아무 탈없이 무사히 선교를 마치고 돌아올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 < 손주은 >

러시아에 가기 전 음식을 조사한 적이 있었다. 사진에서는 러시아의 음식이 맛있게 보여서 맛있을 줄 알았는데 막상 러시아에 가서 먹어보니 내 입맛은 아니었다. 생각보다 향이 너무 강하고 느끼했다. 주언이 오빠가 준비모임 때 러시아 음식이 기름져서 배탈나는 사람들도 있다고 했던 것이 기억났다. 나는 속으로 ‘에이 설마...’ 했는데 러시아 음식을 잘 소화시키지 못했다. 영은이 언니와 소원이 언니 나 이렇게 3명에서는 음식을 많이 먹지 못했다. 남들보다 반 정도 덜 먹었다. 러시아에서 살면 강제로 다이어트가 될 것 같은 느낌이다.

나쁜 점만 있는 것은 아니었다. 우리나라와 달리 습기가 많지 않으니 시원했다. 그리고 러시아에는 집집마다 사우나가 있는 게 신기했다.

그리고 어린이 사역을 처음 시작할 때 시작 시간이 다 되어가는데도 어린이들이 많이 오지 않아 걱정을 많이 했다. 준비 많이 했는데 많이 안 오면 어찌지 하는 불안감이 컸다. 그래서 마음속으로 ‘하나님 오늘 어린이들 많이 오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를 했다. 시작 시간인 2시가 되자 어린이들이 많이 왔다. 이렇게 하나님은 항상 준비하고 계시다는걸 알았다. 다음번에도 기회가 된다면 가고 싶다.



## < 임지수 >

이번 러시아 단기선교는 나에게 많은 생각을 하게 하는 기회가 되었다. 사실 처음에는 단기 선교를 갈 생각이 없었다. 그러나 나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러시아 선교에 동참하게 되었는데, 결론적으로는 단기 선교를 다녀온 것이 참 다행이라고 생각한다.

처음 하는 해외여행이라 설렘도 있었지만, 내가 이 일을 잘 해낼까 생각하니 조마조마 하는 마음이 더 컸었다. 그러나 그 걱정은 기우에 불과했고 러시아 선교 내내 새로운 나라에 대한 색다른 경험과 친절한 사람들, 맛있는 음식들이 나를 즐겁게 해주었다.

비행기를 타고 톰스크까지 가는 과정은 조금 피곤하고 힘들었다. 북경까지는 가뿐하게 도착했지만, 북경 비행장에서 하룻밤을 지새우고 난 후 러시아 노보시비르스크 행 비행기에 올라 탔을 때는 정신없이 잠을 잤던 것 같다. 그리고 도착한 후 공항을 빠져 나올 때까지 오랜 시간이 걸렸다. 러시아 공항에서 잘 통과하기가 힘들다고 주언이 형이 말했던 것이 생각이 나서 긴장하며 이민국을 통과했는데, 다행히 무사히 잘 지나갔다. 그러나 지나친 긴장 탓에 맥이 풀리고 힘없이 공항을 빠져 나왔는데, 러시아 땅을 밟는 순간 그 동안의 모든 여행의 피로가 사라질 것 같은 시원한 바람이 우리를 상쾌하게 맞아주었다.

공항에서 강선교사님 일행을 만난 후, 여러 차에 나눠 타고 우리는 강선교사님이 이전에 사역하셨던 노보에 있는 소망교회로 향했다. 그곳에서 준비한 점심을 먹게 되었는데, 첫 러시아 음식이 나에게서 잊지 못할 강력한 추억이 되었다. 긴 여행 후라서 그런지 정말 맛있었다. 더 좋았던 것은 처음 만난 러시아 사람들이 너무 친절했고 다정스러웠다. 그래서 음식 먹는 내내 마음이 즐거웠다.

그곳에서 자동차로 5시간을 더 달려서 드디어 말로만 듣던 톰스크에 도착하게 되었다. 선교사님이 살고 있는 소박한 아파트에 모두 짐을 풀고 자리를 배정받고 그렇게 정신없이 러시아에서의 첫날이 지나갔다. 그리고 그 다음 날부터 단기선교가 실제로 시작되었다. 정말 강행군이었다. 집에서 자유롭게 지내던 내가 이런 생활을 하는 것이 힘들었다. 아침에 기상하자마자 경건의 시간을 통해 말씀을 묵상하고 함께 그 말씀을 나눌 때 몸은 잠들어 있고 정신만 깨어 있는 느낌이었다. 그러나 이 경건의 시간이 하루를 힘차게 사역하게 하는 힘이 된다는 사실을 사역을 하면서 깨닫게 되었다. 아침을 먹고 버스를 타고 교회에 가서 하루 종일 사역을 하고 밤에 또 버스를 타고 집에 와서 하루를 정리하는 일이 사역기간 내내 반복되었다.

나는 사역 중 주도적인 역할보다 아직 경험이 부족하기에 보조하는 일이 더 많았다. 뒤에서 돕는 것도 즐겁고 행복했다. 그러나 러시아어를 알아듣지 못하는 것은 좀 불편했다. 함께 간 주언이 형과 그리고 동생들인 세언이와 수언이가 통역해 주어야 이해할 수



있었다. 그리고 그 지역에서 사역하고 계시는 다른 선교사님의 자제분들이 함께 와서 통역에 동참해 주었다. 그들의 이름은 기수와 기쁨이었는데, 나도 저렇게 앞에서 통역하면 멋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해보았다.

우리 선교팀들은 환상적인 팀이었다. 목사님을 비롯해서 전도사님들,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청년들 그리고 막내 주은이까지 모두가 다 하나가 되어 자신이 맡은 일들을 잘 감당했다. 우리의 사역을 보고 러시아 교인들도 칭찬을 많이 해 주었다. 정말 기분이 좋았고 사역의 보람을 크게 느꼈다. 다음에 또 올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면 더 러시아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잘 준비해서 더 잘하고 싶은 마음이 간절하다.

러시아는 기회의 땅이라고 생각한다. 이번 여행을 통해 러시아 음식은 건강식도 많았고 물가가 정말 싸다는 것을 알았다. 내가 알아낸 단점은 날파리와 모기가 많다는 것 밖에 없다. 아마 겨울에 왔으면 영하 40-50℃로 내려가는 추운 날씨 때문에 러시아는 못살 곳이라고 생각했었을지도 모르겠다. 무엇보다도 가장 깊은 인상은 받은 것은 사람들이 정이 많았다는 것이다. 아이들도 한국의 옛날 시골 아이들처럼 정이 넘쳤고 심지어 도둑 고양이도 우리에게 친근하게 다가왔다. 우리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 주고 복음 제시에도 열심히 들어 주었다. 한류의 영향이 있어서 한국 사람들에 대한 관심도 많아 한국 아이돌 가수 닮았다고 같이 사진 찍자고 다가오는 사람들도 있었다. 많은 사람들이 집에 돌아가지 않고 우리 팀 주위를 맴돌며 이야기하고 사진 찍고 헤어지기 아쉬워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러시아땅을 변화시키고 계시구나라는 생각이 강하게 들었다.

이제 단기 사역을 마치고 돌아와 러시아 선교를 생각해보며 다시 한 번 좋은 추억들을 떠올리며 후기를 쓰고 있다. 시간이 지나가면 점점 잊혀지겠지만 러시아땅을 위한 기도를 계속해야겠다는 결심을 해본다. 다시 기회가 주어진다면 잘 준비해서 가고 싶다. 우리가 뿌리고 온 복음의 씨앗이 러시아 땅에 잘 뿌리를 내리고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한다.

## 〈 김동욱 〉

선교라는 것을 들어보기는 했지만 몸소 실천해보지는 못했었다. 하지만 방성자 집사님의 권유로 러시아 단기선교를 함께 가게 되었다. 처음에는 아무것도 모르고 따라갔지만 날이 갈수록 선교가 무엇인지 점차 알게 되었다.

나는 방성자 집사님이 맡고 계신 한국어 기초반에 보조역할을 맡게 되었다. 처음에는 어떤 것부터 해야할 지 갈피를 못 잡았지만 방성자 집사님이 준비해 오신 자료가 있어서



한국어사역을 쉽게 할 수 있었다. 러시아친구들은 한국어에 관심이 많아보였다. 그래서 자진 신청해서 교회로 배우러 온 것 같다. 다들 한국어를 배우는데 눈에 열정이 보였다. ‘ㄱ’부터 ‘ㅎ’까지 알려주는데 너무도 잘하였다. 우리가 1개를 가르쳐주면 10개를 습득하는 능력을 가진 친구들인 것 같았다. 나는 그런 친구들과 같이 공부를 하게 되어 너무 기뻐다.

그리고 나도 배운 것이 하나 있다. ‘ㄱ’이 ‘기역’이라서 ‘ㅋ’도 ‘키역’인줄 알았는데 ‘키웁’이었다. 내가 ‘키역’이라 잘못 발음해줘서 러시아친구들도 자꾸 ‘키역’이라고 발음했는데, 여러 번에 걸쳐 다시 고쳐주었다. 이윽고 러시아친구들은 ‘키웁’이라고 말하였는데 너무 다행이었다.

마지막에는 친구들이 페이스북 친구로 추가하여 페이스북 메시지를 하는데 우리가 가르쳤던 것보다 한국어를 너무 잘해서 깜짝깜짝 놀라기도 했다. 한국어로 답장을 해도 당황하지 않고 한국어로 다시 답장을 해주었다. 러시아친구들은 활발하고 친구사귀기를 좋아하는 것 같다. 동생한테도 빈말로 해외여행 가려면 러시아로 가자고 농담도 하였다. 내가 들어본 선교와는 다르게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짜여있어서 너무 좋은 경험이 되었고 하나님을 만나는 것에 한발자국 더 다가간 것 같아서 나에겐 참 의미 있는 여정이었다. 이번 선교에서 고생하신 모든 팀원들께 고맙고 수고하셨다는 말을 해드리고 싶다. 다음 번에도 이런 단기선교가 있으면 한 번 더 참여하고 싶다.

## < 이정필 >

2000년 여름, 군대를 갓 제대했던 시절이 떠오릅니다. 제2차 선한행전에 참여하여 필리핀을 다녀오며 훈련받았던 때이지요. 14년이라는 시간이 흘러 제10차 선한행전에 다시 참여하게 되었으니 참 감사할 따름입니다. 이렇게 부족한 저를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케 하시니 말입니다. 올초 선교위원장님으로부터 러시아 단기선교팀을 맡아달라는 부탁으로 첫 발을 내딛었습니다. 그런데 뭘 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그러나 조금씩 기도를 통해 하나님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팀원을 모집할 때였습니다. 4월 말까지 모집공고를 냈는데 이상하게 마음에 ‘12’라는 숫자가 새겨졌습니다. 이게 뭘까 궁금해 하다가 12제자처럼 팀원을 12명 채워주시겠구나 생각하고 기도했습니다. 사실 모집기한까지 이 인원이 채워지지 않아 좀 걱정이 되었지만 이내 딱 12명이 채워졌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떠나기 한 달 전쯤 1명이 추가로 지원하여 13명이 되었습니다. 어? 13명이네? 한 명이 차이가



나네? 주언이가 러시아에 살다왔으니 주언이 빼고 12명인가? 이런저런 생각이 들었지만 1명 더 많으면 어때라는 생각으로 심각하게 생각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다녀와서 또 궁금해졌습니다. 왜 13명이지?... 그러다 떠오른 것이 ‘제자들은 12명이었지만 예수님까지 하면 13명이잖아’였습니다. 예수님과 12제자, 임춘배 목사님과 12선교대원. 뭔가 딱 맞아떨어지는 느낌? 아... 좀 억지인가요?

준비하는 과정 가운데 주시는 마음이 있었는데, 그것은 사랑이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회복과 하나됨 그리고 한 영혼에 대한 소중함이었습니다. 먼저 회복은 교회적으로 볼 때 해외단기선교사역의 회복이며, 팀원들에게는 각 개인의 영적인 회복이었습니다. 이와 관련해 주신 말씀이 여기 새겨져 있는 시편 52편 8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음이며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의지하리로다.’ 아멘. 하나님 곁에서 늘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면 무성한 가지와 열매를 맺게 하신다는 이 말씀을 붙들고 교회와 개인의 회복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됨인데 팀내 최고령이신 조윤익 장로님과 막내 주은이가 44살 차이였습니다. 다양한 연령이 모이다보니 나이뿐만 아니라 생각과 습관, 생활패턴이 달라서 하나 되기 위해서는 모두에게 내려놓음들이 필요했습니다. 준비기간과 러시아 도착해서 2~3일간은 약간의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그 고비를 넘어서면서 우리 안에 주께서 이루시는 하나됨이 실현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거기서 멈추지 않으시고 아침묵상을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서로 부딪히지 않기 위해 살짝 피하거나 한 걸음 물러서는 모습만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사랑해야 한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말씀을 의지하여 아직 서로의 마음 속에 있는 서로에 대한 판단과 불만들이 사라지도록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서로 칭찬하는 모임을 통해서 우리 각자에게는 하나님이 만드신 아름다움이 있으며 하나님께서 귀히 여기시는 한 사람이라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영혼에 대한 소중함인데요 이것은 하나됨과 연결됩니다.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사랑하라 말씀하셨지만 때로는 이해되지 않는 상황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한 영혼도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사랑하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도 사랑하기를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선교를 마치고 돌아온 지금 팀원들, 선교사님과 가족들 모두를 돌아보면 한 명도 빠짐없이 너무나 귀하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들임을 다시 한 번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13명의 단기 선교사를 부르시고 이끄시어 하나님의 선교사역을 감당케 하셨습니다. 그러니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로 사랑하게 하시고 하나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통해 러시아 땅에 심겨졌고 또 다른 많은 열매들을 맺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부족한 저를 따라오느라 고생하신 팀원들께 감사드리고 열심히 기도해 주신 모든 성도님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중보기도를 통해 힘을 얻고 그곳에서의 사역을 잘 마무리 할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 이어질 제 11차 선한행전도 많은 기대와 관심으로 함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물품목록

| 어린이사역      | 수량    | 달란트잔치    | 수량   | 공예사역         | 수량    |
|------------|-------|----------|------|--------------|-------|
| 물로켓발사대     | 1set  | 저금통-강아지  | 1ea  | 타원부채         | 33ea  |
| 트윈 발펌프     | 1ea   | 저금통-고양이  | 1ea  | 접는부채         | 4ea   |
| 물로켓 날개     | 5set  | 아이언맨가면   | 4ea  | 붓펜           | 21ea  |
| 아트풍선       | 6pack | 스파이더맨가면  | 2ea  | 매직12색set     | 6set  |
| 원형풍선       | 2pack | 6색볼펜     | 30ea |              |       |
| 모양풍선       | 1pack | 머리핀      | 10ea |              |       |
| 풍선기계       | 1ea   | 해적게임     | 3set | <b>한국어교육</b> |       |
| 풍선손펌프      | 4ea   | 시계       | 2ea  | 한국어 교재       | 50권   |
| 스크래치페이퍼 5매 | 15set | 물총       | 24ea | 8칸 공책        | 50권   |
| 페이스페인팅10색  | 2set  | 야광 탕탱볼   | 24ea | 고급반 교재       | 4권    |
| 글리터 젤      | 3ea   | 핸드볼 공    | 5ea  |              |       |
| 츄파츄스 120개  | 3pack | 아이언맨양치세트 | 2set | <b>기타</b>    |       |
| 비누방울 8개    | 5set  | 키티양치세트   | 2set | 비타민C 120정    | 10box |
| 야광팔찌 50개   | 3set  | 배트       | 1ea  | 티셔츠          | 30벌   |
| 과자류        | 5pack | 무선 카     | 2ea  | 밥솥 10인용      | 1ea   |
| 색종이        | 300장  | 마론 비치타올  | 4ea  | 명찰           | 63ea  |
|            |       | 형광펜(3개)  | 5set | 약품           | 1box  |
|            |       | 형광펜(5개)  | 5set | 라면           | 80ea  |
|            |       | 캐릭터 시계   | 5ea  | 글없는책         | 39권   |
|            |       | 건전지(AA)  | 2set |              |       |
|            |       | 스마일 소프트볼 | 16ea |              |       |

공용짐은 우체국에서 가장 큰 종이박스 4개 구입하여 20kg씩 맞추어서 패킹함.

인천공항에서는 23kg씩 2개를 짐으로 부칠 수 있으나 S7 러시아항공에서는 20kg 1개만 짐으로 부칠 수 있어서 다음과 같이 개인 짐 및 공용 짐 이동 계획을 세움.

|           |               |
|-----------|---------------|
| 목사님 - 임지수 | 개인캐리어 + 박스1   |
| 조윤익 - 오세일 | 개인캐리어 + 음식캐리어 |
| 이정필 - 권인혁 | 개인캐리어 + 박스2   |
| 강주언 - 이찬영 | 개인캐리어 + 박스3   |
| 유영은 - 편소원 | 개인캐리어 + 개인캐리어 |
| 방성자 - 김동욱 | 파란캐리어 + 박스4   |
| 손주은       | 개인캐리어(공용짐)    |

\* 기내용으로 작은 캐리어를 2개 가져갔는데 항공사에서 무게와 크기 모두 부적합하여 짐으로 부쳐줌.

---

|   |   |   |                              |
|---|---|---|------------------------------|
| 글 | 쓴 | 이 | 제 10차 선한행전 팀                 |
| 펴 | 낸 | 이 | 이정필 전도사                      |
| 펴 | 낸 | 곳 | 선한교회 선교위원회                   |
| 주 |   | 소 | (156-071) 서울시 동작구 흑석로 13길 12 |
| 전 |   | 화 | 02) 815-6213                 |
| 펴 | 낸 | 날 | 2014년 8월 14일                 |

---